

## 통번역대학원생들의 기계번역 사용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강수정  
(숙명여대)

### 1. 서론

2016년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기계번역(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이 등장한 이래로 통번역 산업과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6년 ‘구글번역’과 ‘바이두번역’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한국어 알고리즘에 기반한 ‘파파고’, 2019년에는 ‘카카오i’가 출시되는 등 새로운 기계번역도구들이 지금까지도 출시되고 있다. NMT의 지속적 출시와 경쟁의 가속화는 그 번역품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sup> 구글은 2017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이용자가 5억 명에 달했으며, 파파고는 2019년에 국내 사용자만 1천만 명을 넘어섰고<sup>2)</sup> 현재는 당시보

다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단순한 번역도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 라이브 채팅, 뉴스, 댓글, AI스피커 등 통번역 행위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 오픈 API 형식<sup>3)</sup>으로 적용되어(김준석 2017: 72)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기계번역도구의 일상화는 언어를 학습하고 번역을 훈련하는 교육의 영역에 큰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기존에는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지만 이제는 잘 모르는 문장 자체를 번역하거나 더 나은 표현을 찾기 위해서 기계번역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임희주 2017: 744) 있으며 작문과제의 수행에 학생들이 기계번역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언어습득의 기존 교수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남신혜 2019).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언어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계번역의 확장 속에서 번역교육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번역능력의 함양은 언어습득과는 다른 방식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李瑞林 2011: 46). 병렬 텍스트의 전환이 아닌 원문을 이해한 탈언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번역전략이 적용되어야 하기(강수정 2017: 24) 때문인데,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번역교육의 핵심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탈언어화 훈련이 부족하고 번역의 전략적 능력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번역에 의존한다면 번역의 깊이를 체득하지 못하여 번역능력의 함양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계번역의 활용과 번역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비롯한 기계번역의 사용이 번역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계번역의 활용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포스트 에디팅에서 번역능력이 번역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적 조건으로 제기되지만(이상빈 2018: 137), 기계번역의 사용과 번역능력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번역교육 현장에서의 기계번역 사용현황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현재적 인식과 활용이 번역교육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번역대학원의 전공자들이 번역학습에 기계번역도구를 얼마나 깊이 사

1) 서울경제 2020년 10월8일 기사, 「“외국어 몰라도 메신저도 가능”...네이버, 파파고에 160억 투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WXMPVA>

2) 한겨레 2019년 4월23일 기사, 「네이버 파파고 ‘국민 통번역 서비스’로 자리매김」,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891099.html>

3) 오픈API는 특정한 응용프로그램을 외부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용하고 있는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학습자들은 기계번역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교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계번역도구를 경험한 국내 통번역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기계번역 사용실태와 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번역현장이나 학습자들의 기계번역도구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문의 2장에서 기계번역을 교육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사용성 조사에 필요한 요인들을 추출한다. 3장에서는 사용성 조사에 필요한 요인들을 개념화하고, 양적인 방법으로 설문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도구화한 후 신뢰도 검증을 진행한다. 4장에는 사용현황과 사용성 조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과 토론을 제안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 2.1 기계번역의 개념과 발전

기계번역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번역을 인간이 아닌 기계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강수정 2020: 11), 그 시스템적 방식에 따라 크게 3단계 진화과정을 거쳐 왔다(신지선 외 2017; 장애리 2017; 최문선 2019). 첫째는 1980년대까지 주로 적용되었던 규칙기반 기계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이고, 두 번째 단계는 코퍼스를 활용한 통계기반 기계번역(Statistics-based machine translation, SMT),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 중인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인공신경망기계번역(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인데, 구글번역과 파파고 등의 번역 어플리케이션들은 인공신경망(NMT) 기반의 기계번역도구들이다.

NMT 기반의 기계번역도구는 사람이 학습하고 기억하는 생물학적 과정의 신경망 구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시스템에 적용한다. 인간의 수십억 개의 신경망이 각각 입력된 정보를 다른 뉴런에 전달하여 지식을 확장하는 것과 같

이 인공신경망의 퍼셉트론(perceptron)이 다층적 언어정보를 학습하여 보다 적합한 번역결과물을 제출한다(천종성 2020: 282). 특히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에 의해서 서비스되는 기계번역도구들은 네트워크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된다. 전문번역사들조차도 문자 입력을 대신하는 장점과 사전을 대체하는 사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강수정 2020: 24).

중요한 것은 NMT 기반 기계번역의 번역품질이 현격히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딥러닝 기술에 기반하여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의미단위를 통째로 학습하는 시퀀스 매핑으로 이전 단계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해졌고(송연석 2018: 126), 선행연구들에서도 문학텍스트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 품질평가를 하고 있다(김순미 2017; 이창수 2019; 신지선 2017; 장애리 2017 외 다수).

기계번역도구의 품질과 사용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문 번역교육을 받은 인간만이 수행하던 인간행위로서의 번역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번역의 주체가 인간인지 기계가 될지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번역공동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승일 2018; 최문선 2019). 실제로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기계번역이 언어학습자의 학습보조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3년경에는 한국어 2~3급 수준으로 기계번역도구가 학습자의 언어학습요류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30년경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문학이나 문화 분야의 민감한 차이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통번역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이찬규 2018: 163).

### 2.2 기계번역과 번역교육

기계번역도구와 관련한 번역교육 연구는 주로 기계번역을 활용한 포스트에디팅에 초점이 있다(최문선 2019: 287). 특히 학부의 교육환경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급증하고 기계번역까지 발전하고 있어 포스트에디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상빈 2016; 김순미 2017). 사회적으로도 기계번역 사용이 늘어나면서 언어전공자는 향후 업무에서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수도 있다(마승혜 2018: 83). 따라서 학부를 중심으로 기계번역

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기계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연구가 진행된다.

한편 언어습득이 일정 단계 이상에 진입한 전문대학원 과정에서의 포스트에디팅 적용은 학부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연구자들은 통번역대학원에 포스트에디팅 수업이 도입될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박혜경 2018; 신지선 2020) 포스트에디팅과 번역과정은 별도의 다른 인지적 맥락으로 평가한다. 번역 경험이 많고 번역능력이 좋을수록 포스트에디팅 능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이준호, 2018: 76) 포스트에디팅 작업에는 전문용어가 중요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용어를 정리하고 번역사는 감수와 같은 역할로 교정이나 편집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박혜경 2018: 188)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포스트에디팅과 번역능력의 배양은 서로 다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계번역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대부분 번역능력과는 다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포스트에디팅에 초점이 맞춰진 관계로, 기계번역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실제 교육과정에서의 적용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계번역이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번역훈련의 주요 목표가 번역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번역을 대신해주는 기계번역도구를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이상빈 2020: 9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번역이 적용되는 현상과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기계번역에 대한 번역공동체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 2.3 기계번역 사용과 인식

기계번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번역품질평가와 그 개선방안에 주로 관심이 있으며(최문선 2019), 기계번역을 활용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번역사와 학생들의 수용현황이나 그 방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신기술 수용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 천중성(2020)은 번역사들이 기계번역이 주는 직업적 위험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되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 동료의 권유나 사회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번역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에서도 번역사들은 이미 업무의 상당부분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있었다(강수정 2020). 번역사들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서 기계번역이 인간번역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향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기계번역이 일반번역을 담당하고 인간은 고맥락 텍스트, 뉘앙스가 중요한 고급텍스트를 담당하는 양극화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번역사들의 예측은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미래에 대한 선행연구(이찬규 2018)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번역교육적 함의가 크다.

번역학습의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포스트에디팅 사례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어서 번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어떻게 수용하고 인식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기계번역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습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어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대개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언어학습의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학생들은 문법, 어휘 학습이나 새로운 표현을 찾거나 자신의 작문과 비교하는데 기계번역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활용이 언어에 대한 불안감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이상민 2019). 또한 기계번역의 장점으로 사용편의성, 시간효율성, 교정작업, 자기주도적 학습을 꼽고 있는데, 기계번역이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임희주 2017).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습의 상당한 부분을 기계번역도구에 의존하는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신혜 2019). 연구자들은 언어학습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교수법의 개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의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채택하거나 내용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학습자 경험 및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그 방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실제로 기계번역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번역능력 배양과 훈련을 위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어떠한 부분을 배제하고 어떠한 부분을 보강할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식조사의 결과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선

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마승혜, 허정경 2020: 44).

이러한 인식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인식의 하위 구성요인을 추출할 수 있지만, 전문대학원 수준에서의 기계번역과의 관계 혹은 기계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인식조사에 필요한 변인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와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기계번역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수용태도를 보이는지는 기계번역이 통번역 산업에서 차지할 역할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표본의 추출은 통번역대학원생이라는 한정된 집단에 대한 표집이므로 전문가 집단에 적용하는 편의표집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1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google survey)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모두 208명이다.

기계번역도구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1단계로 응답자의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정보(전공, 성별, 기계번역 사용여부)로 확인한다. 기술통계를 통해 기계번역을 번역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가려낸 후, 2단계로 사용현황을 파악한다. 주로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 사용시간, 번역에 적용하는 언어의 방향성, 학습에 사용하는 목적, 번역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정도를 빈도분석을 통해서 확인한다. 3단계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사용성 인식의 개념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1단계와 2단계에서 파악한 사용현황에 따라 사용성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수집된 자료와 통계분석의 적용에는 spss25를 사용한다.

#### 3.2 사용성 측정 개념과 조작적 정의

통번역대학원생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사용성 혹은 사용인식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변인을 적용한다. 이상민(2019)과 남신혜(2019)의 연구에 기반하여 번역학습에서도 기계번역을 학습의 보조도구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한다. 학습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정도는 이들 연구의 기계번역 사용목적과 기계번역의 학습 보조사용 효과성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대학원생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attitude)와 사용의도(behavior intention)는 천종성(2020)의 번역사의 기계번역 수용연구에서 도출한다. 태도는 특정 대상의 행위나 사건에 관해서 개인의 감정적, 평가적 차원의 반응을 의미하며(Ajzen and Fishbein 1977: 890), 기술에 대한 품질의 수준이 높거나 만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유지혜, 정의준 2015: 81). 따라서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는 대학원생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기계번역의 사용의도는 사용에 이르는 개인의 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적 사용을 반영하게 된다.

한편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기계번역에 의존한 학습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임희주, 2017), 언어가 일정한 단계에 진입해 있는 통번역전공 대학원생들에게서 그러한 의존성을 기대하는 것은 비논리적 접근이다. 대신 대학원생들이 기계번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감을 가지고 자신의 번역학습에 기계번역을 활용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위통제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 개인 스스로 통제하기 쉽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데(Taylor and Todd 1995)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번역능력에 대한 효능감에 기반하여 기계번역 사용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개념구성에 참고한 관련 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개념과 조작적 정의

측정개념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학습보조 도구인지	기계번역을 학습보조도구로 인지하는 정도	이상민(2019) 남신혜(2019)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	기계번역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정서적 평가의 정도	Ajzen&Fishbein 유지혜&정의준(2015)
기계번역 사용의도	기계번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위 의도	Venkatesh(2003) 천종성(2020)
기계번역 사용통제	기계번역 사용행위에 대해 개인 스스로 통제하는데 쉽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Taylor & Todd(1995) 이우진&이상우(2016)

‘학습보조도구로 인지’, ‘기계번역 사용의도’, ‘기계번역 사용통제’ 등의 개념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한다.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는 일종의 정서적 영향(affect)이므로 개인 정서의 끝단을 구분하여 그 영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이서운 2018: 138). 따라서 5점 척도의 의미분별척도를 적용하였다.

### 3.3 사용성 측정항목의 신뢰도

사용성 검증에 앞서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이용한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 coefficient)’을 구하였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는 0~1 사이의 값을 지니며 값이 클수록 측정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아 설문지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현상의 측정에 0.6 이상이면 설문지의 신뢰도가 높아 측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노경섭 2016: 108).

〈표 2〉 측정항목의 신뢰도

측정 개념	측정항목	크론바흐 $\alpha$
학습보조 도구인지	(기계번역도구를 사용하면) 번역과제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스스로 번역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르던 단어나 문법을 알 수 있게 된다 번역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번역오류의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	0.675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	좋다 - 나쁘다 현명하다 - 어리석다 유쾌하다 - 불쾌하다 긍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가치있다 - 가치없다	0.779
기계번역 사용의도	나는 다음 기회에도 기계번역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가능하다면 다양한 기계번역을 사용하고 싶다 나는 지속적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할 것이다	0.884
기계번역 사용통제	나는 스스로 기계번역을 잘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기계번역의 사용은 나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기계번역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자원을 갖추고 있다 기계번역의 이용은 쉬운 일이다 기계번역의 이용 및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0.849

〈표 2〉에서와 같이 측정항목 변인들은 모두 0.6 이상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보이고 있어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응답자의 특성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모두 208명이지만, 이 가운데 무응답과 오류 응답을 제외한 205명의 자료를 기술통계에 적용하였다. 응답자 중 남성은 19명(9.3%), 여성은 186명(90.7%)이다. 통번역대학원의 성별구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참여 성별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판단한다.

응답자들이 전공하는 언어는 영어가 97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70명(34.1%), 일본어 37명(18.0%), 기타 1명(0.5%) 순이었다. 응답자들 중에서 기계번역을 학습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182명(88.8%)이며, 학습에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23명(11.2%)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표3>과 같다.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SD=3.88)이고, 약 75%의 응답자가 31.5세 이하이다.

〈표 3〉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세부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9	9.3
	여성	186	90.7
	합계	205	100
전공	영어	97	47.3
	중국어	70	34.1
	일본어	37	18.0
	기타	1	0.5
	합계	205	100
기계번역 사용여부	사용	182	88.8
	사용안함	23	11.2
	합계	205	100

응답자의 기계번역 사용 여부는 기계번역을 접해보고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학습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신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사용을 거부 혹은 중단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현황과 사용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계번역도구를 학습에 적용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한 182명을 대상으로 사용현황을 파악하였다.

#### 4.2 기계번역 사용현황 분석

기계번역을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는 한국어 알고리즘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진 파파고이다. 파파고 사용자가 133명으로 73.1%를 차지했고, 구글번역이 40명으로 22%이다. 바이두 사용자는 4명이었으며, 카카오 사용자는 없었다. 기타 사용자는 주로 일본어 기반의 youdao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표 4〉 주로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

	항목	빈도(명)	백분율(%)
기계번역 도구	구글	40	22.0
	파파고	133	73.1
	바이두	4	2.2
	카카오	0	0
	기타	5	2.7
	합계	182	100

응답자인 통번역대학원 재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로는 파파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천종성(2020)의 연구에서 현업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구글번역의 이용이 59.9%를 차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현업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번역을 배우는 과정의 전공자들이라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기계번역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딥러닝 방식임을 고려할 때 많은 한국사람들의 선택으로 한국어 중심의 번역에 있어 파파고의 성능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5〉 번역의 방향

	항목	빈도(명)	백분율(%)
번역의 방향	A 에서 B	61	33.5
	B 에서 A	47	25.8
	양방향 모두	74	40.7
	합계	182	100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언어 방향은 양방향 모두에 적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A에서 B, B에서 A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풋이 나오는 언어에 대한 자신감은 특히 학습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기계번역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통번역대학원생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A언어와 B언어 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방향 모두에서의 사용이 가장 많이 집계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표 6〉 하루를 기준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시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사용시간	20분 이하	77	41.8
	30분 이상	105	58.2
	합계	182	100

응답자들은 대략 하루 평균 30분 이하인 0.47시간(SD=0.504)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루 20분 이하로 짧게 사용하는 비율이 41.8%이고, 30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20분과 30분 사이의 응답은 없었다. 이렇듯 예상보다 짧은 사용시간은 이들이 번역의 대부분을 기계번역에 의지하기보다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대조 감수하거나 어휘나 표현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기계번역 사용목적에 대한 중복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계번역 사용목적은 주로 언어학습자들의 기계번역 사용목적의 항목을 번역학습자들에게 맞춰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는 각 질문에 대해 최대 3개 까지 중복 선택할 수 있다.

〈표 7〉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목적

	항목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사용 목적	적절한 어휘표현 찾기	85	22.0	46.7
	대략적 문장맥락 파악	82	21.2	45.1
	자신의 번역과 비교	68	17.6	37.4
	문장구조와 어순 도움	63	16.3	34.6
	타이핑 편의와 시간절약	49	12.7	26.9
	번역 시 문제해결	19	4.9	10.4
	문법 및 철자 오류	16	4.1	8.8
	기타	5	1.3	2.7
	중복 응답 합계	387	100	212.6

전문번역사들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기계번역이 주는 편의성과 시간절약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지만(강수정 2020: 22), 통번역대학원생들은 편의성(12.7%)보다는 자신의 구체적 번역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1%). 그러나 번역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전략의 문제, 즉 번역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활용은 미미하게 나타났다(4.9%). 따라서 기계번역이 실제로 번역능력 함양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8〉 기계번역이 번역능력 향상에 도움

	항목	빈도(명)	백분율(%)
번역능력 향상 도움	도움이 된다	110	60.4
	도움이 안 된다	64	35.2
	기타	8	4.4
	합계	182	100

번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0.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5.2%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공언어나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어떠한 부분에서 기계번역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주관식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시간절약을 위해 전문용어를 포함한 어휘의 검색이나 확인’,

‘오타를 찾거나 타이핑 하는 시간을 절약’, ‘대략적 문맥을 파악하고 문법이나 문장구조를 빠르게 확인’하는 등 단순한 언어적 요소를 참고하면서 시간절약과 같은 편의적인 측면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있어 NMT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끔 좋은 대안을 준다’, ‘정답이 아닐지라도 막혀서 잘 풀리지 않을 때 단서나 힌트를 얻는다’, ‘복잡한 구문에 대한 해석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사자성어 등과 같이 보다 깔끔하고 정제된 표현을 알려준다’ 등의 응답에서 보듯이 번역전략적 측면에서도 번역품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난이도가 높은 전문 분야의 텍스트를 처음 접하면 자신이 해당 번역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번역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리적 장벽이 된다. 그러나 기계번역이 ‘진입장벽을 낮춰 준다’는 응답과 같이 해당 상황에서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통해 전반적인 맥락이나 전문용어 등을 파악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단 번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진입장벽의 해소와 같은 심리적 요소는 통번역은 물론 언어습득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교수자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주제가 될 수 있다.

### 4.3 기계번역 사용성 인식

기계번역의 사용성에 대해 우선 기계번역을 번역학습의 보조도구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기계번역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였다. 사용성의 핵심적 개념은 기계번역에 대한 전공자들의 태도와 사용의도이다. 태도가 기계번역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평가라고 한다면 사용의도는 실제 사용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즉 태도와 사용의도를 통해 이들의 생각과 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스스로 기계번역을 통제하면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여 기계번역 상황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9〉 전공자의 기계번역 사용성 인식

측정 개념	사례 수(N)	합산 평균(M)	표준편차(SD)
학습보조도구	182	2.78	0.74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	182	2.60	0.58
기계번역 사용의도	182	3.59	0.95
기계번역 사용통제	182	4.09	0.50

사용성 인식에 대한 개념은 리커트 5점 척도 혹은 의미분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균을 고려하면 3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학습보조도구로 인지하는 정도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이는 측정항목의 구성내용이 번역능력이 아닌 언어 학습의 영역에서 도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번역전공자들이 본격적인 언어학습의 보조도구로 기계번역을 고려하는 정도는 떨어지지만, 앞서 사용목적과 번역능력 향상에서 확인했듯이 편리하고 간단하게 번역을 도와주는 도구적 측면은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번역이 전면적 번역의 대체가 아닌, 번역을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들(천종성 2020; 강수정 2020)의 결과와 닮아 있는 지점이다.

통번역 전공자들의 사용성 인식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M=2.60). 하지만 사용하겠다는 의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M=3.59). 표준편차 역시 태도에 대한 부분은 응답이 평균을 중심으로 강하게 모여 있었다(SD=0.58).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가 비우호적인 것은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수정(2020)의 연구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다가 반복적인 오류가 나오면 고쳐주고 싶기도 하지만 절대 고쳐주지 않는다. 소심한 복수다’라고 언급했던 전문번역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잘 드러난다. 이는 번역공동체가 대체될 수도 있다는 기계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에서 나오는 태도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전문가든 전공자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기계번역에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품질이 보장되어 자신의 과업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전문번역사들도 유용성만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용의도를 보여주었고(천종성 2020), 이번 조사에서 번역전공자들도 다양한 번역 보조도구로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의 효능감을 기반으로 기계번역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M=4.09)에서 기

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기계번역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전공자들은 자신의 번역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기계번역을 보조도구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 4.4 기계번역 사용현황에 따른 사용성의 차이

이 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의 사용현황과 사용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사용현황에 따른 사용성의 차이도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공언어, 주로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 연령 등과 같은 요인에 따른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 사용의도, 사용통제 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용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자들의 일일 기계번역 사용시간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는 평균 사용시간인 30분을 기준으로 기계번역을 하루에 20분 이하로 사용하는 집단(41.8%)과 30분 이상 사용하는 집단(58.2%)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편의상 20분 이하 사용집단을 ‘저사용집단’으로, 30분 이상 사용을 ‘고사용집단’으로 구분하여 기계번역을 학습보조도구로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t=-5.35, df=179, p<.001) 유의수준 내에서 저사용자(2.45)보다 고사용자(3.00)가 기계번역을 더 학습 보조도구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10〉 사용시간에 따른 학습보조도구 인지의 차이

	사용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df)	유의확률
학습 보조	저사용	77	2.45	.652	-5.35	179	.000
	고사용	105	3.00	.706			

기계번역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의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test에서도 두 집단은(t=3.89, df=179, p<.001) 유의수준 내에서 저사용자(2.46)보다 고사용자(2.79)가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표 11〉 사용시간에 따른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의 차이

	사용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df)	유의확률
태도	저사용	77	2.46	.596	3.89	179	.000
	고사용	105	2.79	.523			

기계번역에 대한 사용의도에서도 두 집단은( $t=-6.97$ ,  $df=179$ ,  $p<.001$ ) 유의 수준 내에서 저사용자(3.07)보다 고사용자(3.97)가 기계번역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사용시간에 따른 기계번역 사용의도 차이

	사용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df)	유의확률
사용의도	저사용	77	3.07	.980	-6.97	179	.000
	고사용	105	3.97	.737			

이 연구에서 기계번역의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기계번역에 대한 신뢰나 품질평가를 높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독립표본 T-test의 결과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적게 사용하는 사람보다 기계번역을 호의적으로 보고 번역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과업인 번역에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성을 높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5. 논의 및 결론

기계번역의 등장은 번역공동체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기계번역의 품질평가나 포스트에디팅에 주목하고 있지만, NMT 기반의 기계번역은 과거의 기계번역과 같이 고정된 품질이 아니라 매 순간 품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품질면에서 매년 3~7%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 경에는 일반번역은 기계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이찬규 2018: 163) 보다 근본적인 번역교육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으로 번역공동체가 기계번역을 어떻게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번역사들의 기계번역 수용에 관한 일부 연구들과 언어학습에 기계번역을 적용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통번역 전문가를 준비하는 통번역대학원생들의 기계번역 수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는 한국어 알고리즘에 특화되었다고 평가받는 파파고이다. 파파고는 전공언어와 상관없이 모두에서 높은 사용률을 나타냈는데, 응답자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통번역대학원생들임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베이스로 하는 번역에 있어 구글에 비해 파파고의 번역품질이 더 좋다는 신뢰의 반증이기도 하다. 파파고가 딥러닝 방식의 NMT이므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성능은 더 개선되고 개선된 품질로 이용자들이 더 몰리며 다시금 품질이 개선되는 선순환적 피드백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계번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학습 분야에서 기계번역의 품질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확인되고 있지만(이상민 2019; 남신혜 2019) 언어습득과 번역능력의 배양은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은 기계번역을 통번역 전공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연구결과 통번역대학원생들은 기계번역이 번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60.4%), 대체로 NMT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주를 위주로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소수이지만 번역전략에 참고할 정도의 활용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며, 특히 고난도 번역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하였다. 전공자들은 기계번역을 학습자 나름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품질의 개선이 지속될수록 그 경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통번역 전공자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사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인간번역을 준비하는 예비 전문가로서 기계번역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반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공자들의 응답을 보면 향후 기계번역의 유용성이 확인된다면 사용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기계번역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전공자일수록 기계번역에 대해 호의적이고, 사용의도가 높고, 학습보조도구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번역공동체는 기계번역의 사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능동적인 교육방안을 준비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공학적 전망에서도(이찬규

2018), 전문번역사의 인터뷰에서도(강수정 2020), 향후 기계와 인간번역의 역할이 극단적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 전략적인 교육 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계번역시대의 번역교육에 대한 고민의 기초가 되고자 통번역대학원생들의 기계번역 사용현황과 사용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사용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관련 변인의 추출이 제한적이었고,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 번역공동체가 기계번역을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변인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가 사용현황 파악에 초점을 둔 결과 통번역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 마련에는 미흡했다. 향후 이러한 인식연구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안과 전략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수정 (2017) 「중국어 학부번역교육에서 번역일지 적용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9(2): 1-32.

강수정 (2020) 「전문번역사들의 NMT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3): 9-35.

김순미 (2017) 「신경망번역기(NMT) 활용 학부 번역교육의 가능성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5(3): 5-87.

김준석 (2017)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온 기계 번역, 『새국어생활』 27(4): 63-76.

남신혜 (2019) 한국어 학습자의 온라인 기계번역 도구 사용 경험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초급 및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15(2): 55-81.

노경섭 (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 아카데미.

마승혜, 허정경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원격수업 질적 향상을 위한 학습자 인식 조사-통번역 과목 수강 학부생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번

역학연구』 21(4): 39-61.

마승혜 (2018) 「문학작품 기계번역의 한계에 대한 상세 고찰」, 『통번역학연구』 22(3): 65-88.

박혜경 (2018) 「석사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9(3): 163-193.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5.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신지선 (2020) 「‘연구방법론’ 중심의 통번역학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8(2): 79-98.

신지선, 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5): 91-110.

유지혜, 정의준 (2015) 「SNS를 활용한 사회공헌 콘텐츠의 지속적 이용의도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2): 51-92.

이상민 (2019) L2 작문 수정에 미친 기계번역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 대학생 학습자의 인식,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2(4): 206-225.

이상빈 (2016) 통역자기효능감(ISE)과 통역·번역 성취도(능력)의 상관관계 비교 연구, 『통번역학연구』 20(4): 141-165.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이상빈 (2020)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2011~2020년 초)의 논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75-104.

이서운, 이수영 (2018) 「페이스북 이용 초기와 비교해서 이용 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2(6): 124-159.

이승일 (2018) AI번역의 속성 및 번역주체에 대한 논의, 『통번역학연구』 22(4): 183-209.

이우진, 이상우 (2016) P2P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1): 139-182.

- 이준호 (2018)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과 인간번역의 차이 연구」, 『통역과 번역』 20(1): 73-96.
- 이찬규 (2018)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전망」,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9-164.
- 이창수 (2019) 「문학번역에서의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문체에 대한 전산문체학적 비교 연구」, 『번역학연구』 20(2): 111-130.
- 임희주 (2017) 「교양영어 수업에서 영어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 연구」, 『교양교육연구』 11(7): 727-751.
- 장애리 (2017)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한중언어쌍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171-206.
- 천종성 (2020) 「전문번역사들의 기계번역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281-288.
- 최문선 (2019) 「국내 번역학 기계번역 연구 동향」, 『언어학연구』 24(1): 275-297.
- “외국어 몰라도 메신저도 가능”...네이버, 과파고에 160억 투자, 『서울경제』, 2021년 7월5일 검색.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WXMPVA>
- 네이버 과파고, ‘국민 통번역 서비스’로 자리매김, 『한겨레』, 2021년 7월5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891099.html>
- 李瑞林 (2011) 「從翻譯能力到譯者素養」, 『中國翻譯』 2011(1): 46-51.
- Ajzen, Fishbein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Taylor, Todd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6(2): 144-176.
- Venkatesh, Viswanath, Michael Morris, Gordon Davis and Fred Davis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7(3): 425-478.

[Abstract]

### A Study on the Usability of NMT for Graduate Students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Kang, Su-j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age status of artificial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including Google Translation and Papago among students at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eir usage status of NMT is an important variable to predict the status and role of NMT in future markets.

A total of 208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182 people used machine translation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learning. The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said that machine translation helped them to understand vocabulary, expressions, and the overall context of and a rough understanding of sentences, and said that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helps to improve their translation skills. In addition, although they fully intended regular use of NMT they had unfavorable opinions about machine translation. This leads to the interpretation that despite they recognized the value of machine translation, they remained skeptical towards machine transl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 translations expert.

The differences in opinions towards NMT depending on the user groups were investigated. Ye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types of translation apps they used or the language in which they concentrated. However, the longer their use of machine translation, the more favorable their evaluation toward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in that it presents a futur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for interpretation/translation educator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 Key Words: machine translation, NMT, usage survey,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 주제어: 기계번역, NMT, 사용현황조사, 통번역대학원, 통번역교육

강수정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xiaojiang@hanmail.net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기계번역, 미디어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